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Coping Behavior of Urban Husbands and Wives

안양전문대학 식품영양과·사무자동화과

강 사: 송 말 희

Dept. of Food and Nutrition, Dept. of O.A.

Ann Yang Junior College

Lecturer : Mal Hee Song

목	차
I. 서 론	1. 가설설정 및 변인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	2. 조사도구의 선정
1. 갈등의 개념	3. 조사대상
2. 부부갈등의 제요인	4. 자료수집 및 처리
3.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IV. 조사결과 및 분석
4.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 조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ried people's conflict level and coping behavior, and find out how independent variables(male or female, age, level of education, family income, religion, types of marriage, types of family) have an effect on two 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problems as follows ;

- 1) How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the level of conflict.
- 2) How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on the coping behavior.
- 3) How related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coping behavior.

Two instruments were administrated to 302 married man and woman in Seoul, in June, 1990. The first instrument, 25 items questionire, made by investgator, was developed based

upon Lee Sun and Moon Sung Sun. The second instrument, 20 item questionire, based upon Ilfeld, and modified to be appropriate to Korean cultur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F-test and Pearson 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Most husbands and wives show the middle level of conflict.
- 2) Among independent variables, male or female($p < .05$), level of education($p < .05$), types of family($p < .05$),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the level of conflict.
- 3) Husbands and wives's coping behavior are relatively middle level.
- 4) Among independent variables, types of marriage($p < .05$) was variable to have influence on the coping behavior.
- 5) There were very low positive correlation($r = .15, p < .01$) between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negative coping behavior, and very low negative correlation($r = -.21, p < .001$) between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positive coping behavior.

From this results, more objective methods and researchs are needed to develop the style of conflict and the coping behavior.

I. 서 론

전통사회에서의 부부관계는 상하수직의 관계로, 역할의 수행만이 강조되었을 뿐 애정과 같은 감정표현은 무시되고 표현될 수도 없었으며, 남편은 부인을 통제하고 부인은 여기에 복종하며, 가계의 계승과 단합에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 평등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의 핵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상호 인격의 결합과 애정적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는 동료적(companionship)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즉 과거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에서 상호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엄격한 선이 있던 역할수행에서 융통성있는 역할수행으로 변화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과거에는 금기시됐던 주부들의 취업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단위의 취미나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의 부부생활은 애정을 기초로 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함으로써 원숙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반면 애정이 식계되면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 즉 부부는 서로가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마침내는 가족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갈등의 존재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의 친밀감, 경쟁, 가변성의 특성이 부부갈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 역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갈등은 가족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족성원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초를 제공한다. 즉 가족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고 그리하여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면서 보다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Paolucci, Hall & Axinn, 1977).

그러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결국 별거나 이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57년부터 1966년까지의 0.31%에 비해 1967년에서 1976년까지는 0.66%로 늘어나 2배 이상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혼사유별 상황을 살펴보면 1976년에서 1984년까지, 경제문제, 건강상문제, 가족간 불화 등에 의한 이혼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경제기획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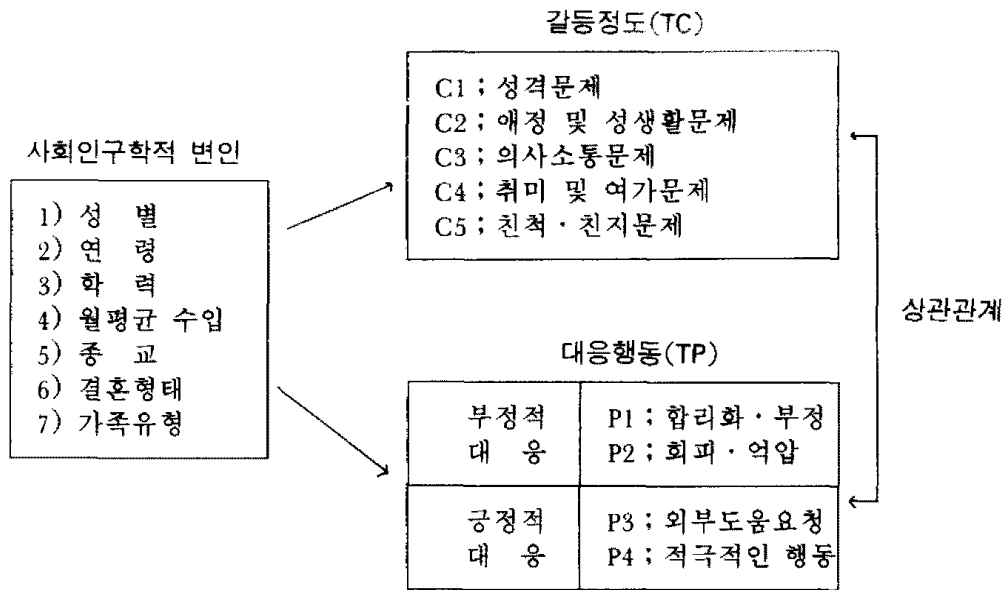


그림 1-1.

통계국, 1986).

이렇듯 사회의 안정과 평화는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되며, 이들 가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그것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며, 연구의 대부분이 생활사건에 따른 스트레스와 갈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신영, 1983; 김양희, 1986; 정민자, 육선화, 1984).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등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인지하고 있는 갈등정도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갈등에 따른 대응행동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현대가족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보다 극소화시키고 아울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대응하여 부부 각자의 행복한 삶, 만족스런 부부관계,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울러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1. 갈등의 개념

1) 갈등의 정의

국어사전에서 갈등은 개인의 어떤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지지되는 현상으로 우리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조화를 파괴한다고 정의하였으며(동아원색대백과사전, 1982),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반대되는 동기, 욕구 또는 목표로 야기되는 불안스런 긴장의 상태로 정의하고 첫째; 개인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둘째; 서로 상반되는 욕구나 목표가 공존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김경린, 김영환·1986). Jung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 또는 자아(ego)와 본능(id)간의 대립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고(이신영, 1983), Lewin은 심리학적인 場 이론(field theory)에 입각하여, 갈등이란 “생활의 場에서 거의 비슷한 강도를 지닌 힘의 개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김경린, 김영환, 1986).

사회학자인 Weber는 갈등이란 사회관계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며, 평화란 갈등의 형태상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여(김혜경, 1987), 갈등이 인간생활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런 갈등에 관한 견해는, 인간관계에서의 긴장의 제거·상호 이해의 증가·분노의 감소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신체적·정신적 부적응,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거리감의 근원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져 왔는데, Sprey(송영자, 1986)는 적은 혹은 모순된 목표나 이것들의 결합에 개인이나 그룹이 직면해 있는 것이라 했으며, Scanzoni와 Polonko(1980)는 한 개인의 행동이나 욕망이 타인의 행동이나 욕구를 봉쇄시킬 때 갈등이 발생하며, 갈등은 가치, 행동, 권력, 자원등의 사용과 불만들에 관한 자신과 타인의 투쟁결과로 나타난다고 했다.

Galvin과 Brommel(1982)은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가족원이 자신의 바람과 다른 사람들의 바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정으로, 태도나 가치관의 차이, 자아존중감이 위협받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Wilnot와 Wilnot(Galvin 외, 1982)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대방이 방해된다고 느끼고 자신의 목표가 상대방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표현하는 투쟁이라고 갈등을 정의했다.

Parsons(이신영, 1983)는 갈등이 본래 분열적이고 분해하는 역기능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하여 체계내의 치료받아야 할 병 즉 이탈행동(deviant behavior)으로 정의하여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Paolucci등은(1977) 가족의 안정성은 가족원의 유대감에서 비롯되는데, 이 유대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바로 갈등으로, 갈등상황에서 가족들이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결국 가족의 안정성을 찾게 된다고 했으며, Coser(Galvin 외, 1982) 역시 갈등은 한 사회 및 집단의 일체감과 경계를 확립·유지시키는 집단결속의 기능을 가지며, 인간관계에서 적의(hostility)의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배출구의 역할을 한

다고 하여 갈등을 변화의 근원이요 동시에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Neil(Green, 1976) 또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갈등을 정의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은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인간관계에서의 투쟁의 결과나 불일치의 결과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므로써 갈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2) 갈등의 유형

갈등은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표현양식 또한 다양하므로 유형을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ewin(박선미, 1987)은 생활의場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동기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 접근-접근의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 : 개체가 두개의 정적 동기사이에 끼어있을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개체가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접근하면 유의성이 커지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작아지므로 갈등은 비교적 쉽게 해소될 수 있다.

II. 접근-회피의 갈등(approach-avoidance conflict) : 개체가 정적 유의성과 부적 유의성에 동시에 접근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독립 : 의존, 협동 : 경쟁 등이며, 개체는 두 반대되는 동기가 지닌 양면성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

III. 회피-회피의 갈등(avoidance-avoidance conflict) : 개체가 두개의 부적 유의성 사이에 끼어있을 때 생기는 갈등으로 이 유형에서 가장 쉬운 갈등의 해소는場으로 부터 도피하는 방법이다.

Rice(1979)는 갈등의 원인에 따라 가족갈등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

I. 개인내 심리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 : 개인의 내적동기, 가치가 타인에 대항하게 될 때 생기는 갈등으로, 자신의 자아에 의해 내적긴

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II. 개인의 신체적 갈등(Intrasomatic conflict)
: 피로, 피곤, 배고픔등의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또는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에 의한 갈등.

III. 개인간 심리적 갈등(Interpsychic conflict)
: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개인의 욕구가 상대에 의해 좌절될 때 나타나는 공격성(aggression), 회피(avoidance), 해체(disorganization) 등이 반복 발생되어 나타난다.

IV. 상황적 또는 환경적 갈등(Situational or Environmental conflict) :

실업, 가족원의 사망, 가족원에 대한 사회의 압력등, 가족기능을 방해하는 예기치못했던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Bordin과 Pepinsky(이신영, 1983)는 지시적 타운슬링의 진단범주에서 갈등을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I. 문화적 갈등(Cultural self-conflict) :

자신들의 욕구나 규범과 다른 문화체계나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힘과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다.

II. 대인적 갈등(Interpersonal self-conflict) :

자기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다.

이외에도 Coleman(김혜경, 1987)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

I.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이성적 갈등과, 각자의 특수한 개성으로 생기는 비이성적 갈등(Rational conflict : Irrational conflict).

II. 두사람중 어느 한사람이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야기되는 표면화된 갈등과, 숨기거나 감추어서 의사소통의 부족, 정신·신체반응 등 어떤 증상(symptoms)으로 나타나는 내재된 갈등(Overt conflict : Covert conflict).

III. 단기간에 형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상황적 갈등과, 만족스런 해결이 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되어 생기는 만성적 갈등(Acute conflict : Chronic conflict).

IV. 자기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갈등과,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대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 : Interpersonal conflict).

V. 결혼의 지속성을 위협할 만한 기초적 갈등과 결혼의 지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비기초적 갈등(Basic conflict : Nonbasic conflict)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유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Green(1978)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부부간 갈등의 궁극적인 핵심이라 하여, 긍정적 태도와, 수용의 자세로서의 청취, 그리고 부정적 태도를 자제할 줄 아는 발언으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Rice(1979)도 커뮤니케이션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갈등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으며, Schulz(1982) 역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커뮤니케이션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폭력으로 까지 발전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Stinnett(1977)등은 보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아울러,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첫단계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불일치의 자유 인정, 다음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상호교환하며,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 부부갈등의 제 요인

Schulz(1982)는 현대사회의 갈등의 기원은 바로 사회변화와 기술의 진보로써 이것들에 의해 가족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이란 막중한 책임을 떠게되지만, 직업적 이동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게 된 부부가족에서는 가족원의 정서적 욕구충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족원의 갈등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Sunett(1977)등은,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친밀감, 상이한 목표·가치·기준등과 같은 부부간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때, 배우자의 인성특성을 자신에 맞게 수정하려 할 때, 역할기대의 불일치등을 꼽고 있다. Landis(송성자, 1975)는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성격적 요인, 종교의 차이, 연령차이, 교육의 차이,

경제배경, 결혼전의 사회적 지위를 지적했으며, Green(1978)은 부부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자기 충족의 수단으로써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Bowen(1977)은 부부중 한사람의 정서적·정신적·신체적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박상옥(1968)은 부부불화의 요인으로 남편의 부정, 성격 및 태도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타인의 간섭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족 및 인성발달의 미성숙 역시 부부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송성자, 1975; Laster, 1981), 유영주(1979)는 성격의 차이, 습관의 차이, 성생활의 문제, 정신연령의 차이를 꼽았으며, 몇몇 연구(박선미, 1987; 이신영, 1983; 김혜경, 1987)에 의하면 경제, 성격, 성 및 애정, 시가족 및 친척관계, 커뮤니케이션, 자녀문제 등의 부부갈등 요인중, 성격과 커뮤니케이션요인에서 갈등을 높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요인이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 연구에 의하면, 전 생활주기를 통해 남편보다 부인의 갈등이 더 높았고, 4단계(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 군입대,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에서 약간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기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으며(박영옥, 1986), 생활주기가 전개됨에 따라 어떤 단절이나 장애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정애란, 1980). Patterson과 Hopes 그리고 Weiss(1975)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요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Bean과 Kerckhoff(1977)는 배우자가 자신의 성과 매우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갈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성격차,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경제적 문제, 성격문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새로운 성 윤리관의 보급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 요인을 사회적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 요인중 부부 상호간의 성격문제, 애정·성문제, 의사소통문제, 취미·여가문제, 친척·친지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대응행동(Coping behavior)이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Pearlin과 Schooler(1978)는 대응을 고통의 점차적인 감소, 문제해결, 현실검증, 복귀의 과정이라 했으며, Chodoff(1964)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Cohen등(김경린등, 1986)은 효과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정보추구, 적극적 행위, 부정적 행위의 억제, 숙고·반성등의 심리적 과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의 행동특성을 갖는다고 했다. Rice(1979)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자신을 자극하는 상황·문제등을 피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는 회피(avoidance), 완전한 이해와 갈등해결에 도달하는 건설적인 싸움, 문제 자체보다 상대의 자아를 공격하는 파괴적인 싸움, 위협과 복종, 역할유도·역할수정·역할역전, 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등으로 분류했다.

Strauss(1979)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논의 또는 해결할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찾는 이성적인 방법(Reasoning), 상대에게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하는 말다툼(Verbal aggression),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등을 사용하는 폭력(Violence),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대응한다고 했으며, 심리학에서는(김경린등 1986),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는 직접적 대응과, 자아개념을 위협하는 심리적 갈등이 생길때 행하는 방어적 대응으로 분류하는데, 전자에는 ① 적극적 대응과 공격행동, ② 태도 및 포부수준의 조정, ③ 철수등이, 후자에는 ① 부정(Denial) ② 퇴행(Regression) ③ 동일시(Identification) ④ 승화(Sublimation), ⑤ 치환(Displacement) ⑥ 투사(Project) ⑦ 억압(Repression) ⑧ 합리화(Rationalization)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이 갈등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내적 대응방법과 외적 대응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대응방법이란 가정내 자원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방법으로, 독립심의 확립과 자부심을 형성시키는 재구성(reforming)과, 문제에 대한 회피반응으로서의 비관적 태도인 수동적 평가(passive appraisal)를 말하며, 외적 대응방법이란 가족외부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가족원의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지원, 사회적 지원, 공식적 관계망에 의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배종렬, 1985)

Menaghan과 Bulman(1983)은 이와는 다르게 대응의 세가지 분류도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원(resource), 대응유형(coping style), 대응노력(coping efforts)이다. 자원이란 대응수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친지등의 대인관계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원과, 환경에 있어서 제 사건과 대상이 야기하는 위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특성인 심리적 자원을 말하며, 대응유형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를, 대응노력이란 특정 상황하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몇몇 연구(배종렬, 1985; Laster, 1981)들은, 갈등을 경험한 사람중 친지, 배우자등의 사회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원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다른 스트레스 증후군에 훨씬 덜 취약적이라고 했으며, 배종렬(1985)은 갈등의 극복방안을 심리적 자원, 친척의 지원, 사회적 지원의 세측면에서 연구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긴장, 경제적 긴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며, 부부간의 긴장, 부모-자녀간의 긴장, 경제적 긴장은 심리적 자원과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Pearlin(1978)등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의 종류와 범위가 많고 클수록,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발산할 수 있어 대응능력이 강해지고 더욱 효과적인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배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응수준이 매우 낮으며, 반대로 부부가 갈등

이나 문제를 변화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때,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했다(Madden, Bulman, 19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은 모든 인간 생활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며, 갈등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이 건설적이나, 파괴적이나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또는 회복되고 재조직되어 가족의 평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을 사회적 지원이나 공식적 관계망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결하는 방법을 합한 긍정적인 대응행동과, 갈등자체를 부정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방법을 합한 부정적인 대응행동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갈등정도나,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선정한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유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별

정민자와 옥선화(1984)는 성별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인지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했으나, 정태경(1972)은 주거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의 측정에서 성별에 따라 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몇몇 연구(한남제 1978; 송영자 1986)들은 부부들이 겪는 갈등원인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에 있어, 송영자(1986)는 이성적, 말다툼, 폭력의 세가지 갈등 표출방법중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2) 연 령

정태경(1972)은 남편 부인 모두 젊은 연령(27세~31세)이 다른 연령집단 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했으며, 정민자(1984)등은 남편 부인 모두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으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김양희, 1986; 배종렬, 1985)는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높다고 했다. 대응행동에 있어서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김양희(1986)는 20·30대에선 합의와 회피의 방법을, 40·50대에서는 폭종과 폭력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으며, 유춘옥(1985)은 20대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련행동으로, 40대는 가족과의 대화로 주부들이 우울을 치유한다고 했다.

3) 학 력

학력은 부부갈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서 남편 아내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갈등이 높으며, 특히 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박영옥, 1985; 유영주, 1980; 한남제, 1984)와, 반대로 김혜경(1987)은 남편 아내 모두 부부갈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력에 따른 대응행동은 학력이 낮은 집단이 말다툼, 폭력등의 비이성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이성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송영자, 1986; Stinette등; 1979)와 학력이 적응방법에 영향을 미쳐서 대졸이상의 집단이 타집단 보다 여러가지 적응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장병옥, 1986; Jalowice등, 1981).

4) 월평균 수입

가정의 소득에 따라 남편들은 영향을 받지않는 반면 부인들은 소득에 따라 갈등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으며(박영옥, 1986; 김혜경, 1987), 가족의 소득은 가족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사회심리적 가족자원과 관계되어 간접적으로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정민자, 1984) 또한 중류계층에서 부모-자녀문제, 하류계층에서는 가족 부양문제가 가장 심한 갈등영역으로 나타났으며(Hutchson, 1974), 하류계층에서 갈등정도가 높다고 했다(정태경, 1972). 송영자(1986)는 소득에 의해서

부부갈등의 표출방법에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배종렬(1985)은 가정소득에 의해서 갈등 극복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5) 종 교

김윤주(1977)는 종교와 스트레스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종교를 가진 사람이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했으나, 장병옥(1986)은 종교에 따라 주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적응방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했고, 송영자(1986)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부부갈등의 표출방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6) 결혼형태

몇몇연구(박영옥, 1986; 한남제, 1978)는 연애결혼이 부부간 갈등이 적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박선미(1987) 역시, 배우자 선택형태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쳐서,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가장 높은 갈등정도를, 자신결정 후 부모동의 형태가 가장 낮은 갈등정도를 나타낸다고 했다. 반면 김혜경(1987)은 부부갈등이 결혼형태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7) 가족유형

김혜경(1987)은 남편 부인 모두 가족유형에 따라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유은희, 1974; 장병옥, 1986) 역시 가족유형에 의해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은 스트레스 적응방법의 점수를 보였다(장병옥, 198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가설 설정 및 변인의 정의

1) 가설 설정

① 기혼남녀의 갈등정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기혼남녀의 대응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③ 기혼남녀의 갈등정도와 대응행동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변인의 정의

① 갈등(Conflict) : 둘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가치·목표·욕구의 충돌상태 및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불일치.

② 대응행동(Coping Behavior) : 인간이 심리적 안정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방법의 총체.

2. 조사도구의 선정

갈등정도의 측정도구는 이순(1984)과 문성순(1986)의 부부간의 문제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세분하여 보면, 성격문제(5 문항), 애정·성문제(5문항), 의사소통문제(5문항), 취미·여가문제(5문항), 친척·친지문제(5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Scales의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신뢰도 검사결과 $\alpha = .73$ 의 신뢰할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대응행동의 측정도구는 성인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Ilfeld의 척도를 우리실정에 맞게 번역한 이수식(1983)의 요인 분석 결과중에서 상관아 높은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합리화·부정(5문항), 회피·억압(5문항), 외부도움요청(5문항), 적극적인 행동(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이 역시 Likert Scales의 방식에 의해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조사도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추출하였다. 지역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등을 고려하여 성북구의 W국민학교, 송

파구의 W유치원, 영등포구 Y여고, 서대문구 Y중학교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1990년 6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4일에서 21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학생에게 배포하여,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다. 총 55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02부 만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및 산술평균을 구한 뒤 t-test, F-test, Scheffé-test, Pearson r을 적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분포는 표 1-1과 같다.

2. 조사결과 및 분석

1) 기혼남녀의 갈등정도

기혼남녀의 갈등정도는 표 2-1에서와 같이 100점만점에 평균 44.15점(표준편차 9.43)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중정도의 갈등정도를 나타냈으나, 아내들이 45.1점, 남편들은 43.0점으로 아내들의 갈등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정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아내 모두 의사소통문제에서 가장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으며, 남편들은 성격문제, 아내들은 취미·여가문제에서 그 다음의 갈등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남편들은 취미·여가문제에서 가장 낮은 갈등정도를 나타내서 부부상호간의 취미·여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 전체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문제, 그 다음은 성격문제의 순서로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다(표 2-2).

2) 배경변인과 갈등정도

7개의 독립변인에 따른 갈등정도의 차이를 검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배경변인	구분	남편		아내		전체	
		N	%	N	%	N	%
성별		138	45.7	164	54.3	302	100.0
연령	20대	8	5.8	28	17.1	36	11.9
	30대	55	38.9	85	51.8	140	46.4
	40대	55	39.9	37	22.6	92	30.5
	50세 이상	20	14.5	14	8.5	34	11.3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학력	중졸 이하	9	6.5	32	19.5	41	8.9
	고졸	48	34.8	78	47.6	126	41.7
	대졸 이상	81	58.7	54	32.9	135	44.7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월평균 수입	70만원 미만	32	23.2	40	24.4	72	23.8
	70-100만원	40	29.0	49	29.9	89	29.5
	100-150만원	36	26.1	40	24.4	76	25.2
	150만원 이상	30	21.7	35	21.3	65	21.5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종교	기독교	41	29.7	60	36.6	101	33.4
	천주교	10	7.3	22	13.4	32	10.6
	불교	29	21.0	39	23.8	68	22.5
	없음 및 기타	58	42.0	43	26.2	101	33.4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결혼형태	중매	73	52.9	82	50.0	155	51.3
	연애	65	47.1	82	50.0	147	48.7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가족유형	핵가족	102	79.0	125	76.2	227	77.5
	확대가족	29	21.0	39	23.8	68	22.5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표 2-1. 기혼 남녀의 갈등정도

* 집단	구분	남편		아내		전체	
		N	%	N	%	N	%
상(53점이상)		18	13.0	31	18.9	49	16.2
중(52-33점)		106	76.8	123	75.0	229	75.8
하(32점이하)		14	10.1	10	6.1	24	7.9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100점 만점.

전체 M.: 44.15

S.D.: 9.43

*집단구분; M±S.D

남편 M.: 43.01

S.D.: 8.18

아내 M.: 45.10

S.D.: 10.29

중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기혼남녀의 갈등정도는 7개의 변인중 성별(p<.05)과 학력(p<.05), 가족 유형(p<.05)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내들이 더 높은 갈등을 보여, 선행연구(박영옥, 1986; 김혜경; 1986)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갈

표 2-2. 갈등정도의 일반적 경향

구분	남편		아내		전체		만점
	M.	S.D.	M.	S.D.	M.	S.D.	
* C1	8.73	2.10	9.15	2.42	8.96	2.28	20
C2	8.21	2.50	8.06	2.99	8.13	2.77	20
C3	9.69	2.79	10.06	2.82	9.89	2.81	20
C4	8.12	2.08	9.17	2.77	8.69	2.53	20
C5	8.23	2.49	8.65	2.61	8.46	2.56	20
TC	43.01	8.18	45.11	10.29	44.15	9.43	100

*C1~C5, TC는 앞의 그림1-1 참조

표 2-3. 배경변인과 갈등정도

배경변인	구분	C N	C1	C2	C3	C4	C5	TC
성별	남	138	8.73	8.21	9.69	8.12	8.23	43.01
	여	164	9.15	8.06	10.06	9.17	8.65	43.10
	계 및 t	302	t=-1.59	t= .47	t=-1.13	t=-3.65 ^{***}	t=-1.40	t=-1.97 [*]
연령	20대	36	8.75	8.00	9.63	8.91	8.08	43.38
	30대	140	9.04	8.05	10.04	8.64	8.82	44.60
	40대	92	9.11	8.40	9.95	8.76	8.36	44.60
	50세 이상	34	8.47	7.88	9.38	8.47	7.64	41.85
	계 및 F	302	F= .82	F= .44	F= .61	F= .21	F= 2.70 [*]	F= .93
학력	중졸 이하	41	9.48	8.73	11.09	9.75	8.36	47.43
	고졸	126	8.82	8.17	9.76	8.90	8.45	44.12
	대졸 이상	135	8.94	7.91	9.64	8.17	8.50	43.17
	계 및 F	302	F= 1.31	F= 1.37	F= 4.54 ^{**}	F= 7.20 ^{***}	F= .04	F= 3.25 [*]
월평균	70만원 미만	72	9.19	8.25	10.29	8.80	8.52	45.06
	70-100만원	86	9.10	8.35	10.00	8.05	8.59	44.91
	100-150만원	76	8.94	8.21	9.81	8.76	8.64	44.38
	150만원 이상	65	8.55	7.61	9.40	8.26	8.00	41.83
	계 및 F	302	F= 1.04	F= 1.01	F= 1.21	F= .82	F= .92	F= 1.75
종교	기독교	101	9.17	7.74	9.81	8.35	8.58	43.67
	천주교	32	9.15	8.25	9.78	8.75	8.18	44.12
	불교	68	8.67	8.92	10.38	9.11	8.44	45.54
	기타 및 없음	101	8.89	7.96	9.68	8.72	8.44	43.70
	계 및 F	302	F= .76	F= 2.71 [*]	F= .91	F= 1.24	F= .19	F= .65
결혼	중매	155	8.89	8.24	9.96	8.85	8.29	44.26
	연애	147	9.04	8.02	9.81	8.51	8.63	44.03
	계 및 t	302	t=-.55	t= .70	t= .47	t= 1.71	t=-1.16	t= .21
가족유형	핵가족	234	8.91	8.01	9.64	8.56	8.42	43.57
	확대가족	68	9.13	8.54	10.73	9.13	8.58	46.13
	계 및 t	302	t=-.68	t=-1.38	t= 2.84 ^{**}	t=-1.63	t=-.45	t=-1.98 [*]

***P<.001, **P<.01 *P<.05

등정도의 하위영역중 특히 취미·여가문제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여, 남편들 보다 아내들이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부들 스스로가 자녀수의 격감, 가사노동의 합리화 등으로 인해 증가된 여가시간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을 가지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주부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러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중 친척·친지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여 30대에서 가장 높은 갈등정도를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갈등정도를 나타내 박영옥(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문제($P<.01$), 취미·여가문제($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대화와, 취미·여가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수입이 적을수록 더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다. 종교, 결혼형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선행연구(장병옥, 1986; 김혜경, 1986)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더 높은 갈등정도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냈으며, 특히 의사소통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는데, 이는 확대가족에서는 부부만이 긴밀한 대화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기혼남녀의

갈등정도는 독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기혼남녀의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기혼남녀의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은 표 3-1에서와 같이 긍정적·부정적 행동 모두를 합해, 80점 만점에 남편들이 (평균 38.6점) 아내들(평균 37.8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평균 38.2점(표준편차 7.1)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중정도의 대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부부의 갈등정도가 중정도(100점 만점시 44.15점)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갈등정도에 따라 대응행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이 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것이다. 대응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표 3-2에서와 같이, 남편·아내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합리화·부정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도움요청 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으면 외부에 표면화시키거나, 친척·친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편·아내 모두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대응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배경변인과 대응행동

7개의 독립변인에 따른 대응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1. 부부의 대응행동

* 집단	구분	남 편		아 내		전 체	
		N	%	N	%	N	%
	상(45점이상)	25	(18.1)	26	(15.9)	40	(13.2)
	중(44-31점)	95	(68.8)	115	70.1	221	(73.2)
	하(32점이하)	18	(13.0)	23	(14.0)	41	(13.6)
	계	138	(100.0)	164	(100.0)	302	(100.0)
80점 만점.	전체 M. : 38.23	S.D. : 7.10		*집단구분 ; M± S.D			
	남편 M. : 38.63	S.D. : 7.50					
	아내 M. : 37.89	S.D. : 6.80					

표 3-2. 대응행동의 일반적 경향

구분	집단	남 편		아 내		전 체		만 점
		M.	S.D.	M.	S.D.	M.	S.D.	
부 정 적 인 행 동	합 리 화 부 정(P1)	9.89	2.81	9.22	2.45	9.53	2.64	20
	회 피 억 압(P2)	8.24	2.55	8.59	3.05	8.43	2.83	20
	계(NP)	18.13	4.41	17.82	4.44	17.96	4.42	40
긍 정 적 인 행 동	외 부 도 움 요 청(P3)	7.85	2.46	7.75	1.94	7.80	2.19	20
	적 극 적 인 행 동(P4)	12.63	3.42	12.31	3.09	12.46	3.25	20
	계(PP)	20.49	4.76	10.07	4.09	20.26	4.41	
총 계	(T P)	38.63	7.51	37.89	6.80	38.23	7.13	80

표 3-3. 배경변인과 대응행동

배 경 변 인	구 분	P N	P1	P1	NP	P3	P4	PP	TP
성 별	남	138	9.89	8.24	18.13	7.85	12.63	20.49	38.63
	여	164	9.22	8.59	17.82	7.75	12.31	20.07	37.89
	계 및 t	302	t= 2.20 *	t= 1.07	t= .61	t= .39	t= .85	t= .82	t= .89
연 령	20대	36	9.63	9.36	19.00	7.19	12.75	19.94	38.94
	30대	140	9.42	8.34	17.76	7.87	12.49	20.36	38.12
	40대	92	9.38	8.16	17.54	7.60	12.32	19.93	37.47
	50세이상	34	10.26	8.58	18.85	8.67	12.41	21.08	39.94
	계 및 F	302	F= 1.07	F= 1.65	F= 1.49	F= 3.07 *	F= .15	F= .65	F= 1.12
학 력	중 졸 이 하	41	9.87	8.65	18.53	8.00	11.80	19.80	38.34
	고 졸	126	9.42	8.57	17.99	7.57	12.23	19.81	37.80
	대 졸 이 상	135	9.52	8.24	17.77	7.94	12.87	10.82	38.59
	계 및 F	302	F= .46	F= .57	F= .47	F= 1.11	F= 2.23	F= 1.96	F= .39
월 평균 수 입	70만원 미만	72	9.58	8.55	18.13	7.25	12.04	19.29	37.43
	70-100만원	89	9.31	8.87	18.19	7.60	12.47	20.07	38.26
	100-150만원	76	9.80	8.48	18.28	7.94	12.22	20.17	38.46
	150만원 이상	65	9.44	7.64	17.09	8.50	13.20	21.70	38.80
	계 및 F	302	F= .49	F= 2.71 *	F= 1.09	F= 4.25 **	F= 1.66	F= 3.64 *	F= .46
종 교	기 독 교	101	9.25	8.47	17.73	8.44	12.44	20.89	38.62
	천 주 교	32	9.81	9.06	18.87	8.12	13.53	21.65	40.53
	불 교	68	.94	8.14	18.08	7.67	12.00	19.67	37.76
	기타 및 없음	101	9.43	8.39	17.83	7.13	12.45	19.59	37.42
	계 및 F	302	F= 1.07	F= .76	F= .58	F= 6.65 ***	F= 1.62	F= 2.97 *	F= 1.74
결 혼 형 태	중 매	155	9.25	8.20	17.45	7.69	12.20	19.89	37.34
	연 애	147	9.82	8.68	18.51	7.91	12.73	20.65	39.16
	계 및 t	302	t=-1.89	t=-1.49	t=-2.09 *	t= .90	t=-1.41	t=-1.49	t=-2.22 *
가 족 유 형	핵 가 족	234	9.59	8.38	17.97	7.81	12.58	20.40	38.38
	확 대 가 족	68	9.29	8.63	17.92	7.75	12.04	19.79	37.72
	계 및 t	302	t= .84	t= .64	t= .09	t= .22	t= 1.21	t= 1.00	t= .67

***P<.001, **P<.01, *P<.05

기혼남녀의 대응행동은 7개의 변인 중 결혼형태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여, 연애결혼일 때 보다 많은 대응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응행동은 합리화·부정의 하위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여 남편들이 합리화·부정의 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대응행동은 외부도움요청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여 50세 이상일 때 외부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대응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대응행동을,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대응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회피·억압방식($P < .05$)과 외부도움요청 방식($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월평균수입이 적을수록 회피·억압의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취하는 반면, 수입이 많을수록 외부도움요청의 긍정적인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적인 대응행동에서는 70만원 미만 집단과 150만원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대응행동은 외부도움요청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전체 긍정적인 대응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냈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응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 원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갈등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형태에 따라서는 전체 부정적인 대응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고, 전체 대응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나타내 연애결혼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응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각 하위영역과 전체 대응행동에서 전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기혼남녀의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은 독립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 역시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5) 기혼남녀의 갈등정도와 대응행동과의 상관관계

기혼남녀의 갈등정도에 따른 대응행동은 표 4-1에서와 같이 외부도움요청방식을 제외한 합리화·부정방식($P < .01$), 회피·억압방식($P < .001$) 그리고 둘을 합한 부정적인 대응방법($P < .001$)과, 적극적인 행동방식($P < .001$) 그리고 전체 긍정적인 대응방법($P < .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갈등을 많이 경험한 상집단은 합리화·부정방식 그리고 회피·억압방식의 대응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라 전체 부정적인 대응방법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갈등정도가 하인 집단은 긍정적인 대응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중 특히 자기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마도 똑같은 문제상황에서도 문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을 더 적게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 대응행동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표 4-1. 갈등정도에 따른 대응행동

대응행동		P1	P2	NP	P3	P4	PP	TP
갈등정도	N							
상(53점이하)	49	9.28	9.75	19.04	7.46	10.95	18.42	37.46
중(52-53점)	229	9.73	8.33	18.06	7.84	12.66	20.51	38.57
하(32점이하)	24	8.08	6.75	14.83	8.08	13.58	21.66	36.50
계 및 F	302	** F=4.61	*** F=10.28	*** F=7.84	F=.80	*** F=7.42	** F=6.00	F=1.25

표 4-2. 갈등정도과 대응행동과의 상관관계

	P1	P2	NP	P3	P4	PP	TP
C1	-.04	.13*	.05	-.08	-.23***	-.21***	-.09*
C2	.05	.16**	.13**	-.05	-.13**	-.12*	0.00
C3	.03	.18***	.14**	-.09	-.25***	-.23***	-.05
C4	0.00	.12**	.07	-.04	-.08	-.08	0.00
C5	0.00	.19***	.12*	-.09*	-.12*	-.13**	0.00
TC	.01	.21***	.15**	-.09*	-.22***	-.21***	-.04

나타내지 않았으나, 각 갈등영역과 대응행동 각 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각 갈등영역 모두 회피·무력방식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체 갈등정도과 회피·억압방식과는 $r=.21(P<.001)$ 의 상관계수로 정적 상관관계를, 전체 갈등정도과 전체 부정적 대응행동과는 $r=.15(P<.01)$ 의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각 갈등영역과 적극적인 행동방식과는 대부분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각 갈등영역과 전체 긍정적인 대응행동과도 대부분이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전체 갈등정도과 전체 대응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서울시 거주 기혼남녀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억압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그것이 다시 feed-back되어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종식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갈등을 더 적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남녀의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은 갈등정도과 각 하위영역과 긍정적·부정적 대응방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전체 갈등정도과, 전체 대응행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기혼남녀의 갈등정도과 대응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정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1)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정도의 부부갈등을 나타냈으며, 남편들은 의사소통문제, 성격문제, 친척·친지문제의 순으로, 아내들은 의사소통문제, 취미·여가문제, 성격문제의 순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남녀의 갈등정도는 7개의 독립변인중 성별($P<.05$)과 학력($P<.05$), 가족유형($P<.05$)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아내들이 그리고 중졸 이하의 집단과, 확대가족일 경우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중정도의 대응행동을 하며, 남편·아내 모두 적극적인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외부도움요청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많은 대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은 7개의 독립변인 중 결혼형태($P<.01$)에서만 전체 대응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연애결혼일 때 더 많은 대응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형태는 부정적 대응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P<.01$)를, 월평균수입과 종교는 긍정적 대응행동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P<.05$; $P<.05$)를 나타냈다.

5) 갈등정도에 따른 대응행동은, 부정적 대응행동($P<.001$)과 긍정적 대응행동($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갈등정도과 대응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전체 갈등정도과 부정적 대응행동과는 $r=.15(P<.01)$ 의 아주 낮은 정적 상관

관계를, 전체 갈등정도와 긍정적 대응행동과는 $r = -.21 (P < .001)$ 의 아주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서울시 거주 기혼남녀들은 남편·아내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문제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가족에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애정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의사소통에서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부부간의 양적·질적 의사소통의 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내들이 취미·여가부분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수의 격감과, 가사노동 절약기구의 보급, 그에 따른 주부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앞으로는 주부들 개개인, 부부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될 여지를 안고 있으므로, 주부들이 잉여시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부들을 위한 사회 제기관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아울러 일을 통한 자아성취를 원하는 주부들에게 일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갈등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만을 행하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나, 긍정적인 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하므로써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아내들이 남편들 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대응행동을 더 적게 취하는 것은 아내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른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갈등정도와 대응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부정적 대응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긍정적 대응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갈등에 처했을 때 문제를 분석하고 숙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자신을 억압하는 폐쇄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그것이 다시 feedback되어 또다른 갈등의 소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니 갈등 존재 자체를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니 만큼 부부각자가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아울러 부부 상호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한 애정과 동료의식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모든 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 제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들이 갈등에 처했을 때, 은폐시키기 보다는 충고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예방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은 심리적인 면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지법과 아울러 관찰이나 면접법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되며, 갈등과 대응행동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질문지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기혼여성들의 증대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사회 제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부들의 취업·재취업 등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결혼생활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을 가진 부부들을 위하여 결혼상담(Marriage Counselling)과 같은 사회사업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연문사.
- 2) 김경린, 김영환(1986). 현대심리학 원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3)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4) 김혜경(1987).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5) 동아출판사 편집부(1982). 동아원색대백과사전.

- 서울 : 동아출판사.
- 6) 박상옥(1968). 이혼의 사회학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7) 박선미(1987). 부부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8)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9)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10) 송성자(1975).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1)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2) 유영주(1980).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3) 유은희(1975). 한국 도시 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4) 유춘옥(1985). 도시주부들의 우울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15) 이수식(1983). 한국성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의 분석. 부산산업대학논문집. 4.
 - 16) 이 순(1984). 중년여성의 우울신경증의 임상적 요인 고찰과 치료에 있어서 사회사업접근에 관한 연구. 송전대 석사학위논문.
 - 17) 이신영(1983).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장병옥(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9) 정민자, 옥선화(1984).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20) 정애랑(1980). 부부관계의 문제에 관한 가족치료의 이론적 접근.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21) 정태경(1972).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응반응에 관한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2) 한남제(1980).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23) Bean, F.D. & Kerckhoff, A.C.(1971). Personality and perception in husband-wife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351-358.
 - 24) Chodoff, P.(1964). Stress, defenses and coping behavior observ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malignan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
 - 25) Galvin, K.M. & Brommel, B.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Scott : Foresman and Company.
 - 26) Green, E.J.(1978). Personal relationship an approach to man and female. McGrawhill Book Co.
 - 27) Jalowice, A. & Powers, M.J.(1981).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room patterns. *Nursing Research* 30.
 - 28) Laster, J.F.(1981). Toward and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 17-19.
 - 29) Madden, M.D. & Bulman, R.J.(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 Wife's attributions for c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71-386.
 - 30) Menaghan, E.(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1) Paolucci, B., Hall, N.A. & Axinn, N.W.(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Johnwiley & Sons.
 - 32) Patterson, G.R., Hopes, H. & Weiss, R.L.(1975). Interpersonal skills training for couples in early stages of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295-303.
 - 33)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 34) Rice, F.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Allyn and Bancon, Inc.
 - 35) Schulz, D.A.(1982). The changing family : it's function and future. Prentice Hall Inc.
 - 36) Stinette, N., Walters, J. & Kaye, E.(1977). Relationship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
 - 37) Straus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